

“화려한…’세트장 5·18 테마파크로”

이무용 교수 포럼서 주장…“5·18 문화 도시’ 프로젝트로 활용을”

영화 ‘화려한 휴가’ 세트장을 장기적 관점에서 ‘5·18 문화 도시’의 선점 프로젝트로 활용, 단순한 영화 세트장이 아닌, 5·18 테마파크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대 5·18민주인권평화센터와 광주전남문화연대 주최로 전남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5·18 공간의 문화 전략과 영화세트장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们가 적어 어렵기는 했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트장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의 장에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이번 포럼에서 이 교수의 주장은 광주의 대표적 이미지인 5·18과 세트장의 관계를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처음 제안했다는 데서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포럼에서 세트장 활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단기 프로젝트로는 ▲5·18 공간을 보존·교육하는 ‘5·18 문화 박물관’ ▲영화촬영장이자 만남과 소통의 장인 ‘5·18 문화총전소’를 제안했다. 또 중·장기 로드맵으로 ▲창작 예술촌 등을 통해 5·18 콘텐츠와 브랜드를 개발하는 ‘5·18 문화발전소’, ▲5·18 문화와 콘텐츠·브랜드를 체험하고 즐기는 테마파크 개념의 ‘5·18 문화놀이터’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와 문화중심도시추진단, 5·18 재단, (주)기획시대 등 지역사회·문화단체들이 ‘세트장 기획위원회’를 구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선 세트장을 지속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활용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효성(광주시 문화산업과) 과장은 “현재 세트장은 수명이 다해 개보수를

할 경우 막대한 돈이 투입돼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된다”며 “유지 관리가 어렵고 안전상의 문제로 있어 행정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광주시에서 맡기는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화려한 휴가’의 김지훈 감독은 “세트장을 산업적, 자본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세트장이 공간과 역사적 사실, 사람이 어우러져 이미 사라져 버린 광주의 역사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은 “세트장 존폐를 포함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단체들이 생산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트장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1일 전남대에서 열린 ‘화려한 휴가’ 세트장 활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세트장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5·18 테마파크로 만들어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은 첨단지구에 위치한 영화 ‘화려한 휴가’ 세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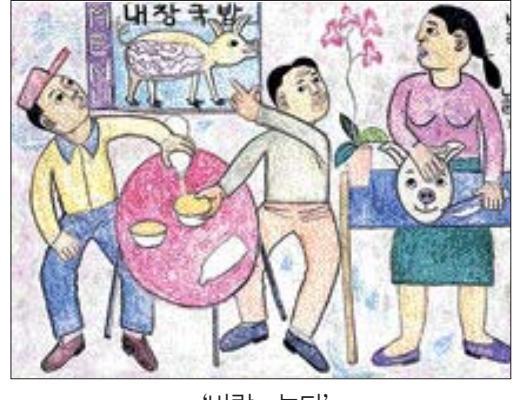
空苑-바람, 그리고 놀다

윤남동展 29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서민의 삶을 독특한 조형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한국화가 윤남동씨의 개인전이 22~2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윤씨는 이번 전시에서 ‘공원(空苑)-바람, 그리고 놀다’라는 주제로 와자지껄한 장터 막걸리 집, 고향마을에서 미주칠 것 같은 이웃과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통민화의 양식이 배어있는 그의 작품에서는 깔끔한 붓질이나 세밀한 묘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사투리 처럼 투박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오는 풍경이 있다.



전국 미디어 교육 페스티벌

23~24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미디어교육 네트워크와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최하는 2007 전국 미디어 교육 페스티벌이 23~24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미디어 교육의 자율적 실천과 담론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디어 교육의 개념 정리와 함께 미디어 교육 교사 양성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포럼과 미디어 교육 사례 전시회와 발표회도 열린다.

포럼에서는 ‘지역 사회 및 공동체 미디어 교육 협력 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미디어 교육 개념 정리와 인증 체계 방안 모색’이 논의된다. 문의 062-650-030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空苑-바람, 그리고 놀다

윤남동展 29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서민의 삶을 독특한 조형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한국화가 윤남동씨의 개인전이 22~2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윤씨는 이번 전시에서 ‘공원(空苑)-바람, 그리고 놀다’라는 주제로 와자지껄한 장터 막걸리 집, 고향마을에서 미주칠 것 같은 이웃과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통민화의 양식이 배어있는 그의 작품에서는 깔끔한 붓질이나 세밀한 묘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사투리 처럼 투박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오는 풍경이 있다.



전국 미디어 교육 페스티벌

23~24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미디어교육 네트워크와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최하는 2007 전국 미디어 교육 페스티벌이 23~24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미디어 교육의 자율적 실천과 담론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디어 교육의 개념 정리와 함께 미디어 교육 교사 양성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포럼과 미디어 교육 사례 전시회와 발표회도 열린다.

포럼에서는 ‘지역 사회 및 공동체 미디어 교육 협력 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미디어 교육 개념 정리와 인증 체계 방안 모색’이 논의된다. 문의 062-650-030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 전문 정보자료실 연다

‘Design-i’ 내달 15일 본격 운영

광주디자인센터가 디자인 전문 정보자료실(사진)을 개관한다.

광주디자인센터는 21일 “센터 5층에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16.97m² 규모의 디자인정보자료실 ‘Design-i’를 구축, 내달 1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Design-i’는 1만여권의 국내외 디자인 전문 서적과 120여종의 디자인 관련 정보지, CD·DVD 등 각종 디자인 관련 영상물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유럽, 일본, 미국 등 디자인 선진국의 최신 디자인 동향을 수록한 126종의 디자인 전문 정보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또 디자인



관련 디자인 정보자료실, 영상물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와 검색시스템도 갖췄다. 문의 062-611-5023.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현대무용단

오늘 광주문화예관 대극장

광주현대무용단이 대표작인 ‘레밍, 턴’ 등을 무대에 올린다. 22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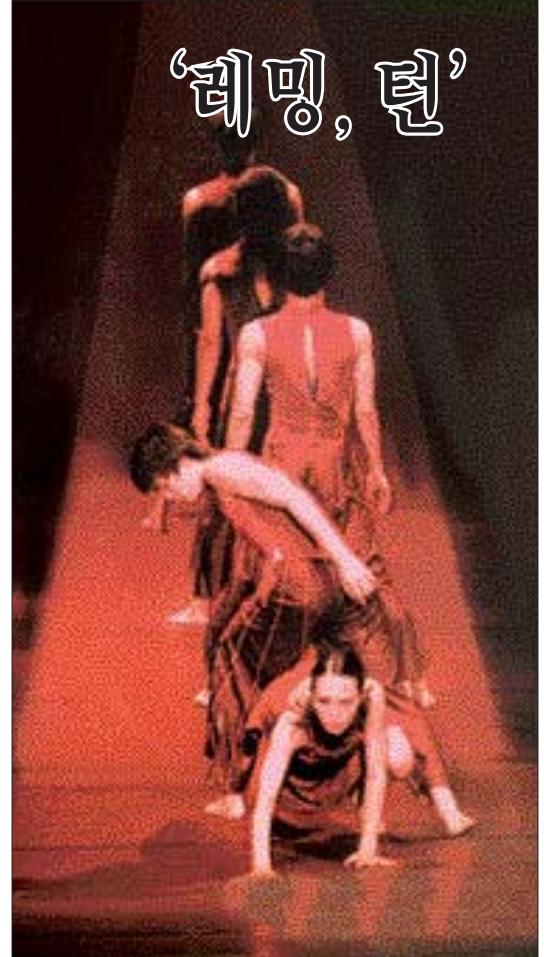
1부 공연에서는 백난희씨가 안무를 맡은 ‘The relationship’이 공연된다.

태아 부부터 엄마와 연결 고리를 갖기 시작한 인간이 이후 가족, 남녀, 동료 등의 다양한 고리를 만들어 가며 삶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을 그린 ‘The relationship’에는 이경화·김미선·유길호·김민성·임소영·한은정·김현경씨 등이 출연한다.

2부는 지난 2005년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레밍, 턴’이 장식한다.

이숙영 씨가 안무한 ‘레밍, 턴’은 무리의 숫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 또 다른 공간을 찾아 죽음까지 간수하며 물속으로 뛰어드는 물물인 ‘레밍’을 소재로 무작정 내달리는 현대인의 삶을 바라본 작품이다.

‘분노’, ‘크로스 로드’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흥기준·김희준·김슬기·조상덕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230-74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23일 광주문화예관…피아니스트 정자영씨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 지휘자 금노상) 제 238회 정기연주회가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마지막 곡은 드보르자크 교향곡 ‘신세계로부터’가 장식한다.

미국에 머물던 드보르자크 고향 체코에 대한 한수를 잊지 못해 작곡한



‘신세계로부터’는 특히 슬픈 느낌의 2악장이 많은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문의 062-510-93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空苑-바람, 그리고 놀다

윤남동展 29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서민의 삶을 독특한 조형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한국화가 윤남동씨의 개인전이 22~2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윤씨는 이번 전시에서 ‘공원(空苑)-바람, 그리고 놀다’라는 주제로 와자지껄한 장터 막걸리 집, 고향마을에서 미주칠 것 같은 이웃과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통민화의 양식이 배어있는 그의 작품에서는 깔끔한 붓질이나 세밀한 묘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사투리 처럼 투박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오는 풍경이 있다.



전국 미디어 교육 페스티벌

23~24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미디어교육 네트워크와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최하는 2007 전국 미디어 교육 페스티벌이 23~24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미디어 교육의 자율적 실천과 담론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디어 교육의 개념 정리와 함께 미디어 교육 교사 양성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포럼과 미디어 교육 사례 전시회와 발표회도 열린다.

포럼에서는 ‘지역 사회 및 공동체 미디어 교육 협력 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미디어 교육 개념 정리와 인증 체계 방안 모색’이 논의된다. 문의 062-650-030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空苑-바람, 그리고 놀다

윤남동展 29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서민의 삶을 독특한 조형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한국화가 윤남동씨의 개인전이 22~2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윤씨는 이번 전시에서 ‘공원(空苑)-바람, 그리고 놀다’라는 주제로 와자지껄한 장터 막걸리 집, 고향마을에서 미주칠 것 같은 이웃과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통민화의 양식이 배어있는 그의 작품에서는 깔끔한 붓질이나 세밀한 묘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사투리 처럼 투박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오는 풍경이 있다.



전국 미디어 교육 페스티벌

23~24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미디어교육 네트워크와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최하는 2007 전국 미디어 교육 페스티벌이 23~24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미디어 교육의 자율적 실천과 담론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디어 교육의 개념 정리와 함께 미디어 교육 교사 양성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포럼과 미디어 교육 사례 전시회와 발표회도 열린다.

포럼에서는 ‘지역 사회 및 공동체 미디어 교육 협력 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미디어 교육 개념 정리와 인증 체계 방안 모색’이 논의된다. 문의 062-650-030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空苑-바람, 그리고 놀다

윤남동展 29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서민의 삶을 독특한 조형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한국화가 윤남동씨의 개인전이 22~2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윤씨는 이번 전시에서 ‘공원(空苑)-바람, 그리고 놀다’라는 주제로 와자지껄한 장터 막걸리 집, 고향마을에서 미주칠 것 같은 이웃과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통민화의 양식이 배어있는 그의 작품에서는 깔끔한 붓질이나 세밀한 묘사 등을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사투리 처럼 투박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오는 풍경이 있다.



전국 미디어 교육 페스티벌</h2